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해변에서 국민 참여 연안정화활동 실시

- 5월 13일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 민간 해양정화단체 및 가수 '션', 방송인 '타일러' 등도 동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5월 13일(토)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해변에서 '알줍(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알줍캠페인은 안전신문고 신고 등을 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알리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거나 뛰는 '줍깅(줍다+조깅)'을 실천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연안정화활동이다. 장갑, 집게 등 정화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현장에서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안전지침 및 연안정화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해안가에 버려진 생활 쓰레기, 어업 폐기물 등을 수거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13일(토)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전국 주요 해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바다가꾸기 플랫폼 누리집(www.caresea.or.kr)에서 자세한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캠페인에는 해양정화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바다살리기 네트워크'* 등 민간 해양정화단체도 함께하며, 지난해 홍보대사(Ambassador)였던 가수 '션'과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Tyler Rasch)'도 함께할 예정이다.

* 전국 해양정화단체 협력 네트워크로 디프다제주, 레디,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 등 국내 17개 단체가 연합해 활동 중(badanetwork.campaignus.me)

캠페인이 진행되는 일부 해변에서는 이벤트 트럭 ‘아이씨크림(I♥SEA CREAM)’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트럭에 방문하면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제공하고, 캠페인 홍보 영상, 재활용제품 전시, 해변 미세플라스틱 채집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알줍캠페인 누리소통망(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국 해변 어디에서든 개별적으로 해변 연안정화활동에 참여하고 인증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면, 매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재활용제품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알줍캠페인 #해양폐기물 #연안정화 #바다가꾸기

류선형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첫걸음인 만큼, 알줍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강예지 (044-200-5303)





참고

트럭 I♥SEACREAM 시안

